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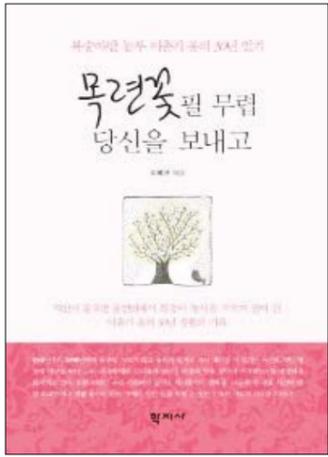
세상을 떠난 농부 이춘기의 일상

▶ 신간도서·이복규 '목련꽃 필 무렵...'
그가 30년간 쓴 일기 엮어 아내를 간호하는 가족들 변화해가는 사회 풍습 등 담아

전북 익산군(현 익산시) 춘포면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다 간 이춘기(1906~1991년)씨의 30년간 일기가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 출간됐다.

'목련꽃 필 무렵 당신을 보내고'(학지사)는 서경대 문화콘텐츠학부 이복규 교수가 농부 이춘기 씨의 일기(1961~1990년)를 탐구해 쓴 책이다.

유려한 필치로 적어 내려간 이 일기에 이춘기는 병든 아내가 죽기까지, 그리고 당사자와 간호하는 가족의 심리 변화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아내가 4개월여의 투병 끝에 목련꽃 피던 계절에 세상을 떠나자 찾아온 그리움과 남겨진 아들 양육의 부담이 어땠는지, 노년에 이르러 독거노인이



되어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여실히 서술하고 있다. 더불어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세시풍속의 변화상도 흥미롭게 기술한다.

세배 문화, 정월대보름의 공동체 의례, 성탄절의 새벽송, 만경강 지역에서만 있었던 단오 무렵의 모래찜 풍습 등에 대한 기록이 그것이다.

가계부처럼 일기에 수입과 지출 사항을 자세히 적고 있어 물가의 변동도 알 수 있게 하며, 통행금지, 완행열차, 전보와 편지에 의존하던 문화, 물 길이다 먹기, 땀나무 걱정, 양식 걱정을 하던 시절 등 지금은 거의 사라진 모습도 담겨 있다.

지역과 관련한 방언 '찌크린다, 얼집에, 봉창, 여의살이, 뒷서들이, 생내기'를 비롯해 '읽두 참지 3년에 문상꾼 떨어진다, 중이 장판에 가서 화나는 이치, 캐놓은 재내가 먹는 재내보다 낫다, 매기가 아끼리 크다고 더 먹냐? 때 쟁에 매 놓아서 두리번거린다, 촌담 관청에 간 것 같다, 오뉴월 보리단술 변화듯, 천통에 개 뛰어들듯이,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기, 쥐 소금 먹듯이, 호랑이 새끼 치게 생겼다, 처녀는 총각 구덕, 물 묻은 바가지 깨 들어불듯' 등의 속담도 실려 있어 연구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추운 겨울 따뜻한 차 한잔에 감성 재즈는 어떨까?

한옥마을 공간 봄서 25일 마당 목요초청공연



매서운 겨울바람을 피해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성 충만한 재즈음악을 곁들인다.

오는 25일 오후8시 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열리는 (사)마당 목요초청공연에선 재즈 트리오 O:neul(오늘)을 만날 수 있다.

O:neul은 보컬 바리톤을 중심으로 안강호(기타), 송미호(베이스)가 모여 따뜻하고 공간감 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 '오늘-현재'라는 공간에 세심하고 간결한 선을 그리듯 만들어 가는 이들의 음악은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각자 개인적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이 세 명이 처음으로 선보인 싱글, '너와 나의 사랑 이야기'는 음악에서의 불필요한 힘을 빼고 그 공허함을 받아들이는 사운드적 특징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들은 이후 2016년 5월 'Fly Again'과 2016년 7월 'Monday Island' 싱글 음원을 발표했다. 올해는 2018년 1월에 자작곡으로 이루어진 음반이 발매 될 예정이다.

보컬 바리톤은 2009년 첫 정규 앨범 'My Secret'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발매하고 한국

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2011년 2집 'My Romance Car'와 2013년 3집 'Park Raon with Hori Hideaki'를 발매했다. 서울 솔리스트 재즈 오케스트라의 전속보컬로써 2010년 1집 'D.D.R.' 2집 '밭도유람' 앨범에 참여했다.

기타리스트 안강호는 하드코어 펑크 록 밴드 '닥터오어 911'의 맴버로 활동하는 등 록 기타리스트로써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임재범, 윤종신, 소하 등의 가수 세션,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등의 방송세션으로도 활동했다. 2014년에는 'Fly Again'이라는 자신의 곡을 직접 노래하여 발매하는 등 보컬리스트로써의 면모를 드러낸 바 있다.

베이스리스트 송미호는 Berklee College of Music Purchase New York 주립 음악 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2014년 피아니스트 이길주와의 듀오앨범 'Identical Mind', 컨템퍼러리 재즈 밴드 유리알 유의 '주머니 속의 꿈'을 비롯해 그녀 자신이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쿼텟 플렛의 첫 앨범 'Quintuplet' 등을 발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지역특화콘텐츠·ICT 기술 융합 'J-스토리랩' 운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8년 사업설명회

지역 우수 ICT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위한 클라우드펀딩 등 전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7일 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도내 ICT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지역 전략산업과 ICT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할 기업들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들이 발표됐다.

특히 진흥원은 올해 중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기업투자설명회 및 지역 우수 ICT기업 해외 현지화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대 아시아 마케팅 지원사업'과 '클라우드펀딩 액셀러레이터 사업' 등 신규 마케팅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콘텐츠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콘텐츠와 콘텐츠·ICT기술이 융합된 뉴 콘텐츠 발굴을 위한 'J-스토리랩'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농생명 ICT기술의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구축' △'Agro-Bio 미래기술 융합밸리 조성' 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ICT꿈나무 육성과

창업기업발굴을 위한 'K-ICT 디바이스랩 운영' 사업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창작터 운영' △'인창조기업지원' 사업, △3D프린팅 '시제품제작지원' △'국제3D프린팅 코리아엑스포' 등 전주시 신성장동력 분야 사업들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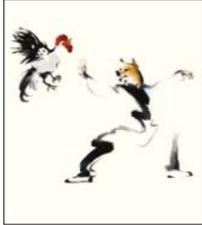
이외에도 한국벤처기술재단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과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생명 분야 기술이전 사업 등 정보도 함께 제공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ICT기술의 발전 결과가 시민에게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기업들과 함께 공조체제를 이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회로 삼아 전주시가 혁신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이어 익산과 군산에서도 도내 ICT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익산문화재단 '무술년, 어서오시개'展

(재)익산문화재단(이사장 정현울)의 솜리골 작은 미술관은 기획전시 '무술년, 어서오시개'전을 마련한다.



30명의 익산지역 시각예술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개'를 주제로, 서양화·한국화·정크아트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자 오랜 벗으로 불리는 '개'. 한국에서 흰 개는 병마·재앙을 막는 벽사 능력이 있고 가운을 길하게 한다고 여겼으며, 누런 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또한 우리의 선조들은 주둥이가 뾰족하여 사냥을 잘하는 사냥개를 전견(田犬), 주둥이가 짧고 잘 짖어서 집을 지키는 개를 폐견(吠犬) 등으로 부르며 개의 성격을 구분하기도 했다.

오프닝은 28일 오후 6시30분. 이날 행사에는 김미정 가요금 연주와 신은주 명창의 공연, 그리고 임충혁 서예가의 새해 복을 기원하는 서예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이다. 전시는 2월 13일까지. /정해은 기자



휘목미술관 기획초청 릴레이 첫번째 '중작과' 초대전

부안 휘목미술관서 31일까지

부안 휘목미술관은 본관 갤러리에서 그룹 '중작과' 기획 초대전을 3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2018 휘목미술관 기획초청 릴레이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초청전. 지역성을 초월하여 전국규모로 결성된 중작과는 한국회화의 중심 물결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미술사적 유행에 편승되지 않고 참작성과 도전정신으로 개성 강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소속 작가들은 매년 회원이 거주하는 지역을 순회하며 정기전과 특별전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내빈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휘목

미술관에서 전시를 선보인다.

전시에는 작가 김재호, 김경영, 김동영, 김상선, 김우연, 김찬식, 김호민, 노혜정, 문형선, 송선영, 송지윤, 윤양숙, 이미숙, 이석중, 이승우, 이운갑, 이준립, 이형모, 임근재, 정경삼, 정규설, 정덕원, 정원주, 정정복, 조주남, 최병화, 최원미, 최정환 등 총 28명이 참여했다.

전시를 기획한 이석중 작가(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장)는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는 회원들의 탐구와 혼이 배어있는 격조 높은 작품들을 한 데 모았다"면서 "전시를 통해 미술인들은 미술발전에 대한 담소를 나누고, 도민들은 문화를 향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2017 겨울방학 특별기획 곤충아트 특별전

http://www.namwon.go.kr

일시 : 2017. 12. 23(토) ~ 2018. 1. 21(일)

장소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운영시간 : 오전10시 ~ 오후5시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찾아오시는길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문의사항
063-620-5751~4

무료체험프로그램

종이랑 나무랑
운영시간 : 오전 11시30분 (화-금)
다종이인형만들기
클레이솜대만들기

하나뿐인 반려식물
운영시간 : 오후 1시 30분 (화-금)
다육이화분꾸미기
마리모주꾸미기

유료체험프로그램

자개거울만들기
운영시간 : 오전 11시30분 (토,일)

곤충표본만들기
운영시간 : 오후 1시30분 (토,일)
선착순 30명(50분전 현장접수)

주최·주관 : 남원시 후원 : 산림청